

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 골든타임을 사수하다

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실시와 도내 최초 긴급 행정명령 발령

□ 추진배경

신천지 관련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,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와 선제적인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명령 긴급 시행

□ 주요내용

○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실시

- 기 간 : '20. 2. 27. ~ 3. 25.(28일간)
- 대 상 : 신천지 신도 16,787명(1차 일반신도 13,460, 교육생 2,081, 3차 재분류 392, 자체조사 854)
- 방 법 : 전담공무원이 문답표에 따라 유선 확인(매일 1~2회)
- 조사항목 : 호흡기 증상(본인/가족), 확진자 접촉, 코로나 검진 여부 등

○ 신천지 관련 긴급 행정명령 조치

- 신천지 시설폐쇄(65개소)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('20.2.25.~3.9.)
- 신천지 시설폐쇄(107개소)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 연장('20.3.10.~3.22.)
- 신천지 시설폐쇄(115개소)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 재연장('20.3.23.~심각단계 해제 시)
- 신천지 신도로서 대구집회 참석자 및 대구지역 방문자 보건소에 신고 및 검사 실시('20.2.29.~3.7.)
- 신천지 교회 대구집회(2020.2.16.) 참석자 및 전체 신도명단 즉시 제출
- 신천지 시설폐쇄 해제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 유지('20.8.15.~)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극복사례

- (문제점) 신천지 신도 중 검사에 불응하거나,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증상 유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.(매일 1~2회 확인)
- 신천지 신도 조사와 관련 각종 민원(신도 부정, 조사 거부 등) 발생, 명단 유출에 대한 부담감, 긴급 행정명령 발령으로 인한 교회측 및 건물주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발생.
- (극복 사례)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, 신속하게 전체 신천지 신도 소재지를 파악하여 증상 유무 확인 및 코로나 검사 긴급 실시
- 집회 참석자 및 신도명단 제출, 대구지역 방문자 보건소 신고 등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행정명령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현행법상 없지만, 긴급한 감염병 비상사태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도내 최초로 행정명령을 발령함(5회)

* 변호사협회의 법적·행정적 자문과 내부 브레인스토밍 실시

-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여 정부의 신천지 전수조사 기간을 전남도 자체적으로 10일간 더 연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.
- 신도 부정 및 검사 불응, 행정명령 해제 요청 등과 관련하여 신천지측과의 적극적인 협의·조정으로 협조를 이끌어냄.

▶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와 도내 최초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함.

□ 주요성과

<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결과>

- 조사인원 : 총 16,787명(모든 신도 증상 유무 확인)
- 유증상자 : 총 418명(코로나19 검사 실시, 음성 판정)

▶ 전체 신도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증상 유무를 매일 확인, 유증상자는 즉시 코로나 검사 실시로 도내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